**스0410 Note**

**오스납발 / 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스4:10]주제1: [방해 받은 성전 재건 공사]주제2: [집요한 방해 공작]

▶ 존귀한 오스납발 –

 `존귀한'은 원어상 `위대하며 혁혁한 무공(無功)이 있는'의 의미이다.

한편, `오스납발' 은 `앗수르가 추적하다'의 의미이다(Rawlinson).

이 이름은 `에살핫돈'(2절)의 별칭이 아니라, 앗수르의 후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`앗수르바니팔'(B.C. 669-626)이었다. 그에게 `존귀한'이라는 형용사가 붙여진 까닭은 그의 탁월한 군사.정치력 때문이었을 것이다.

본절에서,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하는 데 동조한 마지막 부류들은 바로 이 왕에 의해서 옮겨진 자들이었다.

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(1) 타민족들의 사마리아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는 여러

차례에 걸쳐서 이뤄졌으며, (2) 피정복민들의 강제 이주는 앗수르 왕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졌던 일관된 통치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(Fensham).